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조형미를 적용한 넥타이 디자인 제시

배리듬 · 김은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Necktie Design Application of Traditional Korea Men's Ornamentation

Rhythm Bae · Eun-Jung Kim^{†*}

Doctor's Courses, Dept. of Clothing & Texti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7. 5. 4 접수; 2017. 8. 16 수정; 2017. 8. 18 채택)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 can be an enabler of the state in the flow of culture, and the process of modernizing traditional costumes is meaningful work. Neckties are essential in modern Korean men's wear, and they are an important part of men's ornament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necktie design that applies the traditional men's ornaments such as the *Ip*, *Ipyoung* and *Manggeonsik*.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presents four Korean necktie designs via Adobe Illustr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Korean men's ornamentation, it was categorized into rhythmical beauty, emphasis beauty, and natural beauty. Applying this to necktie design, Design 1 imagined the silhouette of a man wearing a *Got* and *Durumagi*. This applied emphasis beauty. Design 2 applied the shaking images of *Got* and *Got-kkeun* to apply rhythmical and emphasis beauty. Design 3 applied a man's upper body silhouette and the shape of wearing a *Got*. This was to apply natural beauty and emphasis beauty. Design 4 applied the shape of *Got-kkeun* and *Gwanja* to rhythmical beauty and natural beaut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development of necktie designs using formative Korean elements can be a part of efforts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to explore developmental direction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Western clothing is accepted without thought. It is a good idea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the modern use of Korean men's ornaments.

Key Words: Korea traditional(한국전통), Men's Ornaments(남성장신구), Aesthetic(조형미), Necktie(넥타이), Design(디자인)

[†]Corresponding author ; Eun-Jung Kim
Tel. +82-62-530-1347, Fax. +82-62-530-1349
E-mail : kimej0234@hanmail.net

※ 본분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K21플러스사업, S17AR43D0801).

I. 서론

전통 문화는 현대 사회의 치열해지는 국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힘이며, 전통의 계승과 발전은 현대의 문화 흐름에서 국가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현대에 맞도록 발전시키는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자 의무이다(최경숙, 2001). 특히 복식분야는 문화의 전체 영역 중에서도 현대와 전통을 조화시킨 제품을 직접 착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세기 이전의 남성은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문화규범으로 생각하여 단조롭고 제한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남성들의 이미지와 자기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다양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기관리가 철저한 남자’라는 의미의 ‘신초식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현대의 남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의복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와 같은 외모 단서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와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수행 하고자한다(송원영, 2009). 이에 따라 남성들의 기호에 맞는 그들만의 장신구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넥타이는 남성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개인의 인격과 품위, 개성 등을 표현하며, 패션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하나의 요소로 평가되어 넥 웨어(Neck Wear)로까지 불려지고 있다(엄지은, 2007).

한편 한국 전통사회의 남성들도 동시대 여성들 못지않게 화려하고 다양한 장신구를 착용해왔다. 특히 조선시대 남성의 두식(頭飾)은 단조로운 남성 스타일에 포인트가 되어 장식적인 역할을 하였다. 남성의 두식 중 입(笠)은 흑색 갓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의 관모 중 하나이고, 입영(笠纓)은 갓을 머리에 고정하는 갓끈을 의미하는 것으로 턱 아래에 긴 띠의 형식으로 되어 긴 길이의 띠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면서 동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망건식(網巾纓)에는 풍잠과 관자가 있으며 이는 의관을 정제하기 위해 착용하는 갓과 함께 남성 장신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남성들의 장신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넥타이 디자인에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인 입, 입영, 망건식의 조형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한국 특유의 전통과 감성을 가진 고유의 문화상품 제안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전통사회 남성의 장신구 중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두식을 응용하여 현대 남성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넥타이를 디자인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넥타이의 유래와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종류를 문헌연구로 고찰하며, 한국 전통미의 현대적 개발과 관련된 김민자(2009)의 연구에 제시된 한국복식의 조형미를 토대로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조형미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조형미를 형상화한 이미지를 넥타이에 적용하여 한국적인 넥타이 디자인을 Adobe Illustration으로 작업하여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종류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에는 두식, 수식, 입식, 요식품 등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발달하였으며, 그 중 최고의 장신구는 조선시대 상류층 남성들의 멋이 집약된 두식이라 할 수 있다(장숙환, 2009). 그러나 한국 전통 남성 두식은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입, 갓, 입영, 망건식 중 관자로 한정하고자 한다.

입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용구로서의 쓰개였으나 신분사회가 되면서 사회성을 갖는 관모로 발전하였다(김은정, 임린, 2009). 입의 종류 중 갓은 차양이 있는 관모를 뜻하는 광의적 의미와 조선시대 양반의 흑립을 뜻하는 협의적 의미가 있으며(이경자 외, 2003) 이를 구성하는 재료와 색에 따라 갓의 종류가 달라진다. 갓의 형태는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인 대우와 빛을 가리는 차양의 역할을 하는 양태를 기본으로 하며, 갓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외에 갓(笠子)을 꾸미는 갓 머리 장식인 입식(笠



<그림 1>
신윤복 「월화정인」

(출처: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p.62) 강명관. 밖으로 걸어나오다 (p.162) 강명관. 2001, 서울: 푸른역사.)



<그림 2>
신윤복 「청금상련」

(출처: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p.162) 강명관. 밖으로 걸어나오다 (p.162) 강명관. 2001, 서울: 푸른역사.)



<그림 3>
신윤복 「청금상련」

(출처: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p.162) 강명관. 밖으로 걸어나오다 (p.162) 강명관. 2001, 서울: 푸른역사.)



<그림 4>
심동신의 초상화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p.84) 장숙환. 2003, 서울: 대원사.)

飾)과 갓끈인 입영으로 구성된다(장숙환, 2003).

입영은 갓을 머리 위에 고정시키기 위해 턱 밑에 매는 갓끈으로 초기에는 목면이나 갑사류 직물로 제작되어 실용적인 역할을 주로 하였으나 점차 갓끈의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장식적인 역할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갓끈의 종류에는 형견을 재료로 하는 포백영(布帛纓)과 옥·은·동 등으로 구성된 구영자(鉤纓子)가 있으며, 턱 아래에 끈을 매서 고정된 후 옷 아래로 고름처럼 길게 내려뜨리는 방식으로 착용하였다(장숙환, 2003). 이와 함께 다양한 재료로 구성된 구영자와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길게 내려뜨릴 수 있었던 포백영의 특징은 장식적인 효과를 더해 주었다. 갓끈의 양식과 구성은 패옥 자체로 꾸민 주영양식(珠纓樣式)과 대나무 혹은 나무로 길쭉하게 만들고 사이마다 나무 또는 주패(珠貝)로 격자(格子)를 부착하여 비단술을 늘어뜨린 것으로 나누어진다(장숙환, 2003). 갓끈 재료의 다양화와 길이의 변화는 갓끈을 두 겹으로 돌려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새로운 착용방법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입영은 계절이나 갓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사치품으로서의 역할도 크게 작용하였다(김은정, 임린, 2009).

망건식은 갓과 함께 착용되는 망건에 부착되는 것으로 풍잠과 관자가 해당된다. 이 중 관자는 망건편자의 귀 부근에 부착되어 편자 끝에 있는 좌우의 당줄을 걸어 넘기는 실용적인 역할과 관품이나 계급을 표시하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반달 형태로 둥근 면은 하늘을 뜻하고 평평한 면은 땅을 뜻한다. 이는 천원지방(天

圓地方)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장숙환, 2003).

이와 같이 입, 입영, 관자는 한국 전통 남성복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으나 각각이 가지는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 성인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장신구라 할 수 있다. 남성이 입식을 착용한 모습은 해당 시대의 풍속화나 초상화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그림 1-4).

2. 남성 넥타이의 유래

남성의 장신구 중 넥타이는 목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남성 패션에 있어서 가장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다(강진주, 2003). 남성의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넥타이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착용자의 지위, 신뢰도, 능력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착용자의 개성을 표현하여 스타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송원영, 2009). 또한 현재 착용되고 있는 넥타이를 실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큰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셔츠의 단추를 덮어주고, 신체를 수직적으로 강조하며, 셔츠와 수트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감각적인 용도로서 심미안적 가치가 크게 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넥타이는 목의 보호라는 기능적인 용도를 넘어 장식적인 용도의 패션성이 강한 품목으로 대두되고 있으며(엄지은, 2007), 단조로울 수 있는 남성의 옷차림에 변화의 포인트가 되고 옷차림을 마무리 하는 최종적인 단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전재국, 1997).

넥타이의 기원은 고대 로마시대의 군인이 착용했던 포칼(Faucal)로 이는 강한 더위 속에서 몸을 식히기 위해 천에 물을 적서 목에 감는 실용적인 역할과 전쟁을 위해 군인들이 출정할 때 부모나 연인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받기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전재국, 1997). 그러나 현재의 넥타이가 실용적이거나 상징적인 측면보다 장식적인 용도로 착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식적인 역할의 기원을 보면 17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착용되었던 크라바트(Cravate)를 찾을 수 있다(전재국, 1997). 크라바트는 루이 14세 때 프랑스를 방문했던 크로아티아 장병들의 목장식에 레이스나 자수 장식을 더하고 가슴 부분까지 길게 늘어뜨려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였다. 17세기 중반에는 프랑스의 상류사회에 처음 등장하여 다른 목장식의 인기와 더불어 확산되었고(강진주, 2003), 18세기 중엽 유럽의 남성 복장이 간소화되면서 넥타이도 함께 작아지게 되어 간단한 끈 모양으로 변했다(정홍숙, 1992). 19세기에는 남성복의 유행을 주도했던 영국에 의해 목에 착용하는 장신구 전체를 넥 클로스(Neck Cloth)라 부르게 되었고, 넥 클로스는 1830년부터 넥타이라는 용어로 불려지기 시작하였다(강진주, 2003). 또한 서양의 넥타이가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된 것은 서구식 복장문화의 확산과 동시에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에서 착용된 것을 시작으로 한다(엄지은, 2007).

III.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 조형미 분석

1.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특성

한국 전통사회의 남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관모, 갓, 신, 부채, 반지 등의 장신구들을 사용해왔고, 한국의 문화가 담긴 전통 장신구의 아름다운 선과 섬세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홍선영, 2008). 이 중 남성 두식의 일종인 입, 입영, 관자는 남성 장신구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관

자는 한국 전통 남성의 장신구에 있어서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지만 형태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 이처럼 중요성이 큰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조형미를 도출하기 위해 갓, 갓끈, 관자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갓은 서양 남성들이 착용했던 모자와 달리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루엣에 있어서도 독자적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포(袍)와 함께 갓을 착용한 남성의 실루엣은 한국의 고유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 중 하나이다. 갓의 색상은 흑색으로 한국 전통 복식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백의(白衣)’와 대비되어 남성의 전체적인 차림새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갓의 소재는 대나무, 포(布), 사(紗), 말갈기(馬鬣)가 주로 사용되며, 현대의 합성 소재와 달리 천연소재가 가진 거칠고 투박한 자연스러움과 속이 은은하게 비치는 아름다움으로 표현된다.

갓끈은 갓을 머리에 고정하는 실용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으며, 갓끈을 구성하는 소재에 따라 직물로 된 포백영과 나무·유리·상아 등으로 된 구멍자로 나눌 수 있다. 갓끈은 가늘고 긴 끈을 턱에 매고 남은 끈이 바람에 자유롭게 흔들리는 모습이 특징적이며 갓끈의 색상은 포백영은 갓과 동일한 흑색이고 구멍자의 경우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조로운 형태와 색상으로 된 남성 복식에서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관자는 망건의 편자 끝에 있는 좌우 당줄을 걸어 넘기는 실용적인 역할과(장숙환, 2003), 장식적인 역할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 중 장식적인 역할은 단순한 원형부터 꽃의 형태, 동물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자의 색상은 관자의 소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흑색의 갓이나 망건과 대비되는 밝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자는 흑색의 망건에 부착되어 좌우로 흔들리는 갓끈의 움직임에 따라 드러나고 감춰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색과 형태가 강조되며 나타난다. 관자의 소재는 금, 비취, 마노, 산호, 옥, 우각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된다. 다음의 <그림 5-13>은 갓, 갓끈, 관자의 사진 자료이다.



<그림 5> 갓

(출처: 우리 옷 이천 년 (p.85) 문화관광부, 2001,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 (p.119) 장숙환, 2003,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 (p.69) 장숙환, 2003, 서울: 미술문화.)



<그림 6> 갓끈



<그림 7> 삼죽엽 관자



<그림 8> 갓

(출처: 韓國服飾史 (p.247) 유송숙, 1998,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p.122) 장숙환, 2003,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 (p.71) 장숙환, 2003, 서울: 修學社.)



<그림 9> 상아 갓끈



<그림 10> 화양 금관자



<그림 11> 갓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 (p.127) 장숙환, 2003,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 (p.123) 장숙환, 2003, (출처: 전통 남자 장신구 (p.67) 장숙환, 2003, 서울: 대원사.)



<그림 12> 유리 갓끈



<그림 13> 백옥 관자

2.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조형미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형태적 특징을 통해 남성 장신구에 표현된 조형미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미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김민자의 연구에 제시된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에 대한 기준을 참고 하였다. 김민자는 전통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로 초공간과 열린미, 선과 결의 미, 비움과 여백의 미, 상징의 미, 중첩의 미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는데(김민자, 2009), 이를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조형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먼저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형태에서 대우

와 양태로 구성된 특징적인 갓의 형태와 그에 따른 한국적인 실루엣, 갓끈의 바람에 흔들리는 자유로운 형태, 관자의 ‘천원지방’을 의미하는 원형을 중심으로 조형미를 분석하였다. 어떠한 형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점은 시간적인 정지를 뜻하지만 선은 시간과 공간적인 움직임에 뜻하는 것이며(김민자, 2009),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직선과 곡선에서 선의 공간적 움직임에 따라 움직임 적용하였다.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색상은 갓과 포백영 갓끈의 흑색과 구멍자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 망건의 흑색과 대비되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던 관자의 소박하고 단아한 색상은 전통 복식에서 빈번하게 착용되었던 ‘백의(白衣)’와 대비되는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복식이 대부분 백색인 것으로 풍류와 멋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 중 갓, 허리띠, 선추 등(국립중앙박물관 편, 2004)이 복식의 색과 대비를 이루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갓과 갓끈의 흑색과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의 구멍자, 갓, 망건의 흑색과 대비되는 미색의 관자 등에서 강조미를 적용하였다.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소재는 갓과 갓끈의 내부가 은은하게 비치는 얇은 소재의 표현과 거칠고 투박한 갓의 소재, 순금, 비취, 마노, 유리, 보석, 우각 등의 다양하고 자연적인 갓끈과 관자의 소재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자연적인 소재와 얇은 소재에서 오는 중첩의 자연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갓끈의 착용 방법 중 갓끈의 길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한쪽에 여러 번 돌려서 매는 방식으로 착용한 것은 착용상의 편리함의 목적과 함께 한쪽을 채우고 남은 한쪽을 비워놓는다는 측면에서 비움의 자연미를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성 장신구의 소재와 착용의 측면에서 자연미를 적용하였다.

이상으로 한국 남성 장신구 중 입식의 조형미를 형태, 소재, 색상을 기준으로 나누어 형태에서는 율동미를 색상에서는 강조미를 소재에서는 자연미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IV.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 조형미를 적용한 넥타이 디자인 개발

1. 넥타이 디자인 기획

본 연구에서는 형태, 색상, 소재를 기준으로 넥타이 디자인 기획을 실시하였다. 넥타이는 폭이 10cm 이상인 와이드 넥타이와 8~9cm의 클래식 넥타이, 6cm 이하의 넥타이로 나눌 수 있다(정순용, 2016). 클래식 넥타이의 폭은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8cm의 폭과 145cm의 길이로 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한국 전통소재인 사(絲)와 모시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형태를 응용한 무늬를 디자인하기 위해 원단 자체에 무늬가 없는 것을 선택하였다. 디자인의 표현은 Adobe Illustration을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 조형미를 적용한 넥타이 디자인 기획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넥타이의 형태는 조형을 이루는 선을 중심으로 갓의 양태와 대우에서 나타나는 한국적인 곡선과 갓끈의 움직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갓끈의 선은 전통한복의 고름, 배래선, 치마의 주름에서 보이는 선과 같이 정적인 순간에는 직선이지만 동적인 움직임과 함께 곡선이 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김민자, 2009). 이에 갓끈의 좌·우로 흔들리는 이미지를 한국적인 리듬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넥타이의 색상은 오방색 중 황색, 청색, 홍색

<표 1>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조형적 특징과 조형미

	형 태	색 채	소 재
갓	- 대우와 양태로 구성 - 한국적인 실루엣	- 백의(白衣)와 대비되는 흑색	- 내부 비치는 얇은 소재 - 거칠고 투박한 소재
갓끈	- 바람에 흔들리는 자유로운 형태	- 흑색의 포백영 - 다양한 색의 구멍자	- 목면, 갑사류 직물 - 대나무, 유리 등 다양
관자	- 천원지방 의미, 원형	- 갓, 망건의 흑색과 대비되는 미색	- 순금, 비취, 마노, 산호, 옥, 우각 등

↓	↓	↓
율동미	강조미	자연미

<표 2>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 조형미를 적용한 넥타이 디자인 기획

분 류	디자인 기획
형 태	갓의 양태, 대우의 곡선, 갓끈의 움직임
소 재	한국 전통소재 실크 사(絲), 모시
색 채	오방색 중 청색, 홍색, 황색 + 흑색 무늬
치 수	폭 8cm, 길이 145cm
디자인 표현	Adobe Illustration

을 바탕색으로 하고 흑색의 무늬를 넣어 흑색과 원색이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다. 색은 각 시대, 풍습, 문화 등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는 상징적 이미지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현재 전통복식이라 표현하는 조선시대 복식의 고유한 색채현상인 백색 애호사상과 화려함과 강렬한 원색의 조화(금기숙, 1988) 중 흑색과 원색의 사용을 통해 시각적으로 대비되는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한국 전통소재의 직물 종류에 따라 거칠고 소박한 표현성이나 정교하고 섬세하게 보이는 이미지와 소재의 얇은 두께감으로 투명하게 안이 보이는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거친 질감의 소재들은 직조과정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생성감의 동감이 감지되면 제작과정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며(금기숙, 1988), 얇은 두께감의 사(絲)는 안에 받쳐 입은 옷이나 신체의 형태가 확실하지 않고 아련한 형태로 공개되어 직설적이고 명쾌한 아름다움에 비해 은근한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의 성질을 디자인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금기숙, 1988). 이상으로 형태, 소재, 색상을 분석한 결과를 적용한 넥타이 디자인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 넥타이 디자인 제시

디자인1은 강조미를 적용하고자 하며, 한국 남성의 전통 장신구인 갓을 착용한 남성의 이미지를 응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갓의 실루엣과 갓과 함께 착용하는 포의 실루엣을 이미지화한 형태를 넥타이 전체에 배치하였다. 무늬의 표현은 스텐실 기법을 이용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넥타이에 배치된 무늬는 각각의 크기와 위치

를 정해진 기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넥타이의 색은 황색 바탕에 흑색 무늬를 프린팅 하여 무늬가 강조 되도록 하였으며 넥타이의 소재는 한국 전통소재 중 실크 사(絲)를 사용하고 별도의 무늬는 없는 것으로 하여 프린팅 된 무늬가 두드러지도록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2는 율동미와 강조미를 적용하고자 하며, 갓과 갓끈의 형태를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갓의 평면 실루엣과 갓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갓끈을 이미지화 하여 흑색으로 디자인 하였고, 이를 통해 갓끈이 가진 리듬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흑색 무늬 위에 청색과 홍색 핫픽스를 부착하여 나무, 유리, 보석류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화려하게 표현되었던 갓끈을 형상화하였다. 넥타이 하단의 모서리에는 넥타이 바탕색과 동일한 색의 술 장식을 부착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도록 디자인 하였다. 넥타이의 색은 차분하게 톤 다운된 보라색 바탕에 흑색을 사용하여 무늬를 표현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한국 전통소재 중 실크 사(絲)로 흑색 무늬가 강조되도록 민무늬를 사용해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 3은 자연미와 강조미를 적용하고자 하며, 갓을 착용하고 있는 남성의 상반신 실루엣을 넥타이 하단의 중앙에 배치하였다. 또한 상반신 모티브 아래는 'Man's Kot'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넥타이 전체에는 남성이 착용하고 있는 갓이 바람에 자유롭게 흩날리는 느낌으로 작은 크기의 갓 형태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하단의 남성 실루엣 모티브와 연결감을 주었다. 넥타이의 색은 청색 바탕에 흑색 문양을 디자인 하였고, 문구 사이의 빈 공간에는 황색과 홍색을 채워 활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한국 전통 소재인 모시를 사용하여 천연소재

<표 3> 한국 전통 남성 장신구의 조형미 적용한 넥타이 디자인 제시

분류	디자인1	디자인2	디자인3	디자인4
디자인				
모티브				
패턴				
디자인 요소	조형미: 강조미 색상: 노랑색, 흑색	조형미: 울동미, 강조미 색상: 툇다운 뉀 보라색, 흑색	조형미: 자연미, 강조미 색상: 청색, 흑색	조형미: 울동미, 자연미 색상: 흥색, 흑색
	소재: 실크 사(絲) 	소재: 실크 사(絲) 	소재: 모시 	소재: 실크 사(絲)

의 거친 질감은 유지하되 청색 화학염료로 염색하여 젊은 연령층에 어울리도록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 4는 울동미와 자연미를 적용하고자 하며, 갓끈과 관자의 형태를 이미지화 하여 표현하였다. 옥으로 된 망건 장식인 관자를 표현하기 위해 꽃모양의 미색 장식물을 부착하고, 관자 아래로 긴 길이의 갓끈을 두 번 감아 착용한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갓끈 무늬는 흑색으로 디자인하였고, 불규칙한 위치에 백색 핫픽스를 부착하여 화려하게 디자인하였다. 넥타이의 색은 홍색 바탕에 흑색 무늬를 사용하였고, 미색의 장식물이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한국 전통소재 중 실크 사(絲)를 사용하였는데, 소재 표면에 무늬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하여 무늬가 두드러지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1-4의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V. 결론

남성의 장신구 중 하나인 넥타이는 현대 한국 남성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아이템이지만 그 기원이 서양복식에 있고 문양과 소재가 서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화의 전체적인 영역 중 복식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수용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식과 관련된 문화상품은 대중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 고유의 이미지가 표현된 디자인의 넥타이는 대중에게 제안하기 좋은 패션 스타일링 아이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넥타이 형태에 한국적인 소재와 무늬를 적용한 디자인을 제시하고자하며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인 활용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각 잇기, 자수, 직조 방법의 변화와 같이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텍스타일 디자인 개념의 문양이나 장식물의 변화로 넥타이에 무늬를 표현하여 실제적인 제작이 용이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디자인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한국 남성 장신구 중 입, 입영, 관자는 두식 중성인 남성을 표현하는 예복용 장신구로 이들의 조형적 특성을 세 개의 조형미로 제시하였다. 먼저, 입, 입영, 관자의 조형미는 다음과 같다. 형

태에서는 갓의 한국적인 곡선과 갓끈의 좌·우로 흔들리는 한국적인 리듬감을 울동미로 제시하였고, 색상에서는 오방색을 기초로 한 원색과 백색의 조화를 강조미로 제시하였다. 소재에서는 한국 전통소재의 거칠고 소박한 이미지와 여백의 이미지를 자연미로 제시하였다. 조형미 분석결과 울동미, 강조미, 자연미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넥타이 디자인에 적용하여 디자인 1, 2, 3, 4로 표현하였다.

디자인1은 강조미를 적용하여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착용한 남성의 실루엣을 이미지화 하여 넥타이 전체에 배치하였다. 무늬는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디자인하였으며 넥타이의 색은 황색 바탕에 흑색을 사용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한국 전통소재 중 실크 사(絲)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디자인2는 울동미와 강조미를 적용하여 갓과 갓끈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갓의 평면 실루엣과 갓끈을 이미지화 한 패턴으로 갓끈이 가진 리듬감을 표현하였고, 넥타이 끝 모서리에 술 장식을 부착한 디자인으로 착용 시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흔들리도록 디자인 하였다. 넥타이의 색은 보라색 바탕에 흑색을 사용하였다. 넥타이의 소재는 실크 사(絲)로 고급스럽게 표현하였다.

디자인3은 자연미와 강조미를 적용하여 갓을 착용한 남성의 상반신 실루엣과 갓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넥타이의 색은 청색 바탕을 사용하여 무늬 사이의 여백에 황색과 홍색을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넥타이의 소재는 모시로 거칠고 소박한 질감이 자연미가 표현되도록 디자인하였다.

디자인4는 울동미와 자연미를 적용하여 갓끈과 관자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넥타이의 색은 홍색 바탕에 흑색과 미색을 사용하여 포인트가 되도록 하였으며, 넥타이의 소재는 실크 사(絲)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갓끈을 착용 위치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활동적인 이미지, 남성의 목장신구 중 장식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넥타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갓끈 끝에 부착된 술이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면서 한국적인 리듬감이 표현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넥타이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한국적 조형요소를 적용한 넥타이 디자인 개발은 현재의 복식이 서양의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한국 전통문화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탐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 남성 장신구 조형미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홍선영. (2008). *한국 전통 장신구를 모티프화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 문화상품디자인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문헌

- 강명관. (2001). *조선 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 나오다*. 서울: 푸른역사.
- 강진주. (2003). *남자는 스타일로 승부한다*. 서울: 리즈엔북.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4). *한국 전통 매듭: 균형과 질서의 미학*.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금기숙. (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은정, 임린. (2009). *역사 속의 우리옷 변천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편). (2001). *우리 옷 이천 년*. 서울: 미술문화.
- 송원영. (2009).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과 헤어스타일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지은. (2007). *한국 전통문양을 응용한 벡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1998). *韓國服飾史*. 서울: 修學社.
- 이경자, 홍나영, 장숙환. (2003). *우리 옷과 장신구*. 서울: 열화당.
- 장숙환. (2003). *전통 남자 장신구*. 서울: 대원사.
- 장숙환. (2009). *조선후기 笠纓에 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1), 1-16.
- 전재국. (1997). *남자의 옷 이야기 1*. 서울: 시공사.
- 정용순. (2016). *전통조각보를 응용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조형디자인연구*, 19(4), 9-28.
- 정홍숙. (1992).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 최경숙. (2001). *한국 전통미의 조형적 표현 연구 : 전통장신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